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유형에 관한 연구 -기사의 내용분석에서-

이진아*
kxkx1000@hanmail.net

안병곤**
bgan@gn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유형 |
| 2.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특징 | 3.1 언어폭력 |
| 2.1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현상 | 3.2 집단따돌림 |
| 2.2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기사의
변화 | 3.3 사이버폭력 |
| | 4. 결론 |

主題語: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여학생폭력(girls violence), 언어폭력(verbal violence), 집단따돌림(group bullying),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

1. 서론

최근 한국 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여중생과 여고생들의 잔인한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데 이어 충청남도 아산에서 여중생과 여고생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매일경제 2017. 9. 20).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전체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신체폭력 형태를 보이는 것에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라인이지메(LINEいじめ)¹⁾, 집단따돌림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폭력적 양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문부성 2015).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경상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책임연구원, 교신저자

1) 메시지 어플「LINE」을 주로 사용해서 행하는 이지메 행위를 총칭한다.

또 한국 최근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은 그 확산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경기도교육청 2016), 일본은 최초 폭력 경험 시기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5).

한일 양국 여학생폭력의 확산속도와 이런 경험의 배경으로는 SNS²⁾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국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교사나 학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문부성 2016).

이와 같이 한일 양국에서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은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차 일반화되고, 폭력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폭력 즉, 눈에 띄는 남학생들의 학교폭력 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점점 복잡적이고 음습하게 진화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폭력의 대처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30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에는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증하듯 2017년에 일어난 아오모리현(靑森縣)에서의 SNS가 원인으로 지목된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해 일본은 ‘또 이지메로 인한 자살, 백약이 무효한 것인가(またいじめによる自殺もう百薬が無益か)’(요미우리신문 2017.8.24.)를 사설제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일본에서 여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할 것 없이 지켜보는 사람조차 무력감을 들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폭력은 2004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³⁾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⁴⁾를 1년에 2번씩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해 왔다. 그리고 꾸준히 학교

2) Social Network Service 의 약자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줄여서 SNS라고 부른다.

3) 학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4)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매년 두 번씩 하는데, 보통 1차는 3-4월, 2차는 9-10월 동안 30일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폭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다양한 교급(校級), 성별,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역부족이다.

특히 여학생폭력에 관련해서 한국의 교육부 및 학교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들도 어떤 것이 학교폭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피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 중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키워드 및 유사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특징을 알아본 뒤, 여학생들에게 두드러진 유형인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특징

2.1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현상

2016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여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래 기사에서의 ‘무서운’, ‘폭력괴물’, ‘폭행’ 등의 단어들은 최근 한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여학생의 폭력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이 각 개인의 SNS에서 공개되기 시작하여 견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 수법의 잔인함과 가해자들의 죄책감 없는 모습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학교폭력 신고한 학생 찾아내 또 폭행한 ‘무서운’ 여고생들(다음뉴스, 2017. 7. 28)

* 무엇이 소녀들을 ‘폭력괴물’로 만들었나(매일경제, 2017. 9. 6)

* ‘페이스북5) 스타 돼야지’ 강릉여학생, 폭행(동아일보, 2017. 9. 10)

* 전주에서 여중생B(15)양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세계일보, 2017. 9. 18)

* 학교폭력 가해자 숨방망이 처벌에 머물러(중앙일보, 2017. 10. 26)

* 「기도쿠스루(既読スルー)」⁶⁾ 「비밀 그룹(裏グループ)」에 궁지에 몰리는 여학생들

5) 세계 최대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업체다. 사진·동영상 SNS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도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다

6) 「기도쿠스루(既読スルー)」 라인(LINE)에서 「기도쿠(既読)」가 되었음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朝日新聞, 2017. 4. 23)

- *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들 탓」(産経ニュース, 2017. 7. 25)
- * 고2 여학생 자살, 또 「라인이지메(LINEいじめ)」인가?(産経新聞 2017. 7. 26)
- * 여고생 자살 제3자조사위원회에 의해 이지메로 밝혀져(朝日新聞 2017. 7. 23)
- * 여고생 이지메가 「아주 위험하다(ヤバすぎる)」(yahoojapannews, 2017. 8. 24)
- * 무시 등 「비교적 가벼운 이지메(比較的軽いいじめ)」 증가 (読売新聞 2017. 9. 25)

또 위의 기사 내용 중 전주에서의 여학생 자살 사건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몇 년 동안 동급생들에게 언어폭력과, SNS에 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이 자살할 때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기당 1번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기당 1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30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학교와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YTN 2017. 9.28).

위와 비해 한국에서 최근에 늘고 있는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주로 교실에서의 언어폭력과 SNS상에서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본인이 표현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알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 관계가 예민한 여학생들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살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일지라도 그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의 원인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어 단순한 ‘소문’이나 ‘뒷말’이 SNS로 전달되고 공유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부산경찰청 2017).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가해의 이유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나 학부모들은 되도록 학교 안에서 조용히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한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주요 가해자가 여중생, 여고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교육부 2016).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은 신체적인 폭행이나 금품갈취보다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7) 제3조사위원회(第三者委員会)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 이외의 유식자에 의해 위기관리체제의 재구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의 학교폭력처벌은 가해학생이 ‘저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통 담임교사의 재량인 ‘서면사과’⁸⁾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재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집요하고 잔인하게 피해학생을 괴롭힌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각종 기사에서는 ‘학교폭력 갈 데까지 갔다’, ‘어른과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동아일보 2017. 9. 11)’ 등의 기사가 줄을 잇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소년법개정’⁹⁾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위의 한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것은 교우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 혹은 보건교사에게 가장 많고 이 상담은 인터넷 상담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이에 대해 일본에서의 여학생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일본의 경우도 소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5). 그 배경으로는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이지메(LINEいじめ)를 들 수 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교우관계가 넓어지고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인이지메(LINEいじめ)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쿠스루(既読スルー)’, ‘비밀 그룹(裏グループ)’ 등의 주로 SNS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일본 여학생들의 특이한 교우문화에서 엿볼 수 있다. 같이 어울리는 그룹 내에서도 각각의 ‘비밀 그룹(裏グループ)’이 존재하고 대부분 그 속에서 ‘은밀한 왕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한국의 여학생들이 ‘외톨이형 따돌림’이 많은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본 고베시(神戸市)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의한 여중생의 자살사건(読売新聞 2017. 9. 23)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 학생은 ‘비밀 그룹(裏グループ)’ 내에서 은밀하게 이지메가 이루어졌으며 피해학생의 부모와 학교 담임교사 등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최근 라인(LINE)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과거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라기보다는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시’나 ‘열외’ 등의 비교적 ‘가벼운 폭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아주 ‘위험하다(ヤバすぎる)’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서면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9)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한국 여학생들은 ‘페이스북(facebook)스타 돼야지’ 등의 표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인기 척도를 SNS에서의 ‘조회 수’, ‘댓글’, ‘구독’, ‘좋아요’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만들게 되고, 본인의 폭력영상조차도 인터넷상에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현상으로 이어 SNS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최근 일반인들이 ‘아프리카TV’¹⁰⁾에서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통해 조회 수를 늘리고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별풍선’을 얻는 것과 비슷한 심리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SNS상에 본인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와 본인이 속한 그룹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미디어와 인터넷 속의 ‘연예인’ 등에게 무차별적인 ‘악플’¹¹⁾을 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악플러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나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한편 한일 양국에서는 여학생 폭력에 대응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과 징계에 있어서 접근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주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동급생들에 의해 몇 년 동안의 폭력 피해를 입어 자살에 이르렀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¹²⁾는 가해자 중 가해 정도가 심한 1명에 대해서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고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학폭위가 운영된 이래 학폭위의 결정에 부당함을 느낀 피해자 학부모들의 고소와 고발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16. 10. 29). 이는 피해자 학부모 뿐 아니라 가해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여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진통을 겪고

10) 아프리카TV(영어: afreecaTV)(코스닥: 067160)는 대한민국의 SNS 미디어 플랫폼이다. (주)아프리카TV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로서, 특별한 기술·장비·비용 없이도 누구나 쉽게 PC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이다.

11)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헐뜯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소와 고발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로는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학폭위 마다 해석이 달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인이나 학교에서의 권위가 있는 유력자의 자녀일 경우, 다른 가해자와 달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지는 등 조직적인 은폐가 가능하여 학폭위 결정을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음뉴스 2017. 9. 27).

또 한국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는 중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 양측 모두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학교폭력의 원인은 1차적으로 학교라는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교직원이 평상시에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며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의 ‘학교폭력 인지(いじめ認知)’ 부터 ‘중대사태’ 까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가해자와 학부모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어 다방면에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부성 2014).

또 학교에서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부기관의 ‘제3자 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서 학교 측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지, 처리 등의 은폐나 미흡한 점이 드러날 경우 교장을 비롯하여, 교감 및 담임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야후재팬뉴스 2017. 5. 14).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가와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교육부나 해당학교에서 관리와 감독의 미비점을 문제시해야 하지만 책임은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폭력예방시스템에서는 ‘전주여중생 자살사건’처럼 30여 차례의 상담과 매년 2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 모두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카카오톡 등에 의한 집단따돌림이 신체폭력까지 연결되고 있고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대부분은 사소한 ‘소문’과, ‘뒷말’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인 경우가 많아 저연령을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왔

다. 그럼에도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 라인(LINE)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는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데, 학급 내의 작은 ‘비밀 그룹’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2.2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기사의 변화

한국에서 여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때는 2005~2006년경으로 이 시기에 특히 이슈화되었던 이유는 휴대폰 속의 ‘여학생 폭력 동영상’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찍은 ‘여학생 폭력 동영상’, ‘여중생 집단 폭행동영상(조선일보 2006. 12. 25)’은 동영상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100만 명이상이 시청하였고 곧 모방동영상들이 만들어 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또 여학생들의 폭력이 일어난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방관’과 ‘무책임함(다음뉴스 2007. 11. 20)’을 꼬집는 기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로는 폭력동영상 속의 가해학생은 이미 학교폭력문제가 원인이 되어 다른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온 학생이었음에도 학교에서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동안에 피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신고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점, 폭력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학생들에게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기기에 대해 폭력관련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99년에는 4.4%였던 여학생학교폭력이 2007년에는 23.9%로 급증(매일경제 2007. 12. 28)했다는 기사와 함께 여학생 학교폭력의 ‘급증’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의 여학생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표현은 2007~2008년경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일본의 여학생들이 활발하게 휴대폰을 이용하는 시기로 여학생 학교폭력의 ‘심각화’와 ‘악질화’를 표현한 기사에는 ‘휴대폰메시지’에 의한 ‘휴대폰폭력’에 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휴대폰메시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여학생들끼리 항상 휴대폰을 켜두고 상대방의 ‘휴대폰메시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3초룰(3秒ルール)’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는데, 메시지를 받고 3초 안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무시’ 또는 ‘열외’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공부나 식사 혹은 잠을 자는 등의 일상생활 중에도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중독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비공식사이트(学校裏サイト)’¹³⁾의 게시판에 의한 중상(中傷)이 심각했는데, ‘학교비공식사이트’에서는 비방과 중상뿐 아니라 반 친구의 나체사진을 합성하기도

하고 관련 동영상 올리는 일등이 횡횡했다. 더욱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 할 때 개인 확인 여부가 필요 없어 어떤 내용을 올려도 필터링이 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피해자들은 ‘부등교(不登校)’¹⁴⁾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학교비공식사이트’에 의한 피해자는 중학생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여학생 피해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보통 중학교 입학과 함께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구입시기가 더 빠르고 여학생이 전자게시판 등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MMD연구소 2007).

2009년에 일어난 고베시(神戸市) ‘여중생 자살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여학생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서만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과 구조에 따른 ‘사회 문제’가 된 것을 지적하는 기사(読売新聞 2009. 2. 26)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ブログ)’에 의한 비방과 중상문제가 연일 보도됨에 따라 일본의 여학생 학교폭력 기사를 다룬 중심내용은 여학생 폭력의 ‘급증’, ‘심각화’, ‘악질화’를 말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원인’, ‘유형’, ‘배경분석과 특징’, ‘대책’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9년에는 ‘학교비공식사이트’나 ‘블로그’ 이외에도 만남게사이트(出会い系サイト)인 ‘프로필사이트(プロフィールサイト)’에서의 미성년자매춘문제와 성범죄,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했고, ‘위장메일(なりすましメール)’¹⁵⁾ 등에서의 중상, 이지메 문제 등 인터넷과 휴대폰에 의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만남게사이트에 의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18세 이하의 여학생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상의 문제로 인해 일본 여학생들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충무성정보통신백서 2011).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08년 이전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 ‘남학생은 인터넷 중독, 여학생은 휴대폰중독(머니투데이 2009. 10. 29)’을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남학생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여학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독’을 우려하는 기사가 많았다.

또 2008~2009년에 한국의 여고생들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왕따카페’¹⁶⁾가 생겨나는데, 실제로 피해학생의 이름과 학교명, 별칭 등으로 개설된 ‘왕따카페’는 오로지 피해학생의 ‘외

13) 어떤 학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공식사이트와는 무관계로 만들어진 전자게시판과 게시판 내의 웹사이트 등이다.

14) 不登校(ふとうこう)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등교거부라고도 불린다.

15) 메일 송출자를 사칭해서 수신된 메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가장메일이다. 이것은 메일을 송출할 때 인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송출자를 사칭할 수 있다.

16)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커뮤니티 그룹으로, 왕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를 말함.

모'나 '행동'이 싫어서 개설된 카페로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피해학생만을 제외한 반전체가 회원인 카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당시 경찰청에서는 전국에서 이러한 카페 110여개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하고 학부모들의 관리감독을 약속 받고 훈방 조치하였다(세계일보 2012. 5. 21).

물론 2008~2009년에 '왕따카페'뿐 아니라 '안티카페'¹⁷⁾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같은 반의 싫어하는 급우에 대한 '안티카페'만 100개가 넘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 '안티카페'는 반 친구뿐 아니라 나와 상관없지만, 평소 싫어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개설되었고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진 등의 자료들이 무작위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는 한국의 대표적인 SNS인 '카톡(카카오톡)'¹⁸⁾이 보급되면서 이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아닌 '카톡왕따' 등의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실제로 '카톡왕따'로 여고생 자살사건이 있었고(매일신문 2012. 5. 24), '카톡왕따'라는 '신종 학교폭력의 출현'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여학생의 사이버폭력문제가 남학생보다 더 심각하다는 기사문장 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2013. 4. 27).

그리고 기사에 '사이버왕따'라는 용어가 출현하면서 과거에 비해 '새로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왕따' 문제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더불어 초등 학교 고학년의 여학생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4).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2010년부터 점점 SNS에 의한 폭력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SNS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중 기존의 '학교비공식사이트'등의 전자게시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능은 같은 반의 학생들과 교사 모르게 소규모로 비밀리에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24시간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SNS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라인(LINE)을 들 수 있는데 '라인트러블(LINEトラブル)', '라인이지메(LINEいじめ)', '라인따돌림(LINE外し)' 등의 용어로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2013~2014년의 일본의 여학생 학교폭력은 '음습하고 흉포한 여학생 폭력'에 대한 기사(야후재팬뉴스 2013. 8. 24)와 함께 본인의 SNS에 '이제는 한계(もう限界)' 등의 유서를 남기고 여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된다. 그에 따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몇 년 동안의 동급생들의 교묘한 괴롭힘에 자살을 예고하는 편지를 정부에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일본의 학교폭력이 주목을 받았다.

17) 안티팬들이 모여 어떤 대상의 안티활동을 하는 인터넷 카페.

18) 카카오톡(KAKAO TALK) 개발사 카카오 출시 2010년 3월 18일 iOS앱으로 처음 출시되었다. 종류 인스턴트 메신저

SNS에 의한 학교폭력은 과거의 전자게시판에 의한 학교폭력과 다른 점은 첫째로 익명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어도 개의치 않는 변화를 가져왔고, 둘째로 전자는 누구라도 내용확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SNS상에서의 ‘비밀 그룹(裏グループ)’을 통해 당사자 일부만이 볼 수 있어 외부에서는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SNS의 특성상 학교에서뿐 아니라 집과, 학원 등 24시간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즉 과거 ‘학교비공식사이트(学校裏サイト)’와 또 다른 유명 전자게시판인 ‘2채널(2ch)’¹⁹⁾ 등에서의 ‘협담’, ‘뒷말’ 등과 비교하여 현재의 SNS에 의한 학교폭력은 더욱 ‘음습화되고 흉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2016년의 한국의 학교폭력기사에는 ‘왕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여학생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 그 전의 학교폭력의 기사와 확연히 다른 점으로 SNS를 통한 왕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쉽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왕따 가해자들은 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주였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각각의 대화방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가 없어 더욱더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5~2016년의 일본의 기사에서는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의외의 공간(意外な場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뒷말’을 올려 어른들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최근 일본에서는 라인(LINE),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인스타그램(Instagram)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SNS가 있고 그것을 감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비해 학부모나 교사들은 SNS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점들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설령 국가의 규제에 따라 SNS에 학교폭력 관련 기능을 없앤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이보다 더 빨리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여 활용가능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한국에서는 여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함을 다루는 기사가 많다. 그 이유로는 신체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어떤 심한 폭력을 저질러도 학생의 ‘학습권’, ‘인권’ 등과 충돌하여 처벌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처벌은 중학교,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더 경미하기 때문에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 2ちゃんねる(にちゃんねる)는 일본최대 전자게시판이다.

이에 대해 2017년 일본에서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의 기사보다는 학교의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가해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에 부응하여 그에 따라 경찰서, 상담소 등의 유관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중점을 둔 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은 진일보적인 모습으로 여겨진다.

즉, 한일 양국의 여학생폭력에 대한 기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더불어 급증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은 왕따카페와 카톡왕따 등으로, 일본은 학교비공식사이트와 라인이지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일 양국의 여학생 폭력은 휴대폰의 출현과 함께 급증하여, 심각화와 음습화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한일 양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한국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사가 많은 반면, 일본은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기사가 많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유형

한국 여학생 학교폭력의 현상과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로 ‘SNS’ ‘카톡’ ‘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들 수 있다. 위의 유형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비율이 더 많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여학생의 학교폭력의 현상과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로 ‘스마트폰촬영’ ‘동영상투고사이트’ ‘열외’ ‘자살’ ‘이지메카스트(いじめカースト)’²⁰⁾ ‘라인(LINE)’ ‘기도쿠무시(既読無視)’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그리고 문부성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현저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일 양국의 학교폭력의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현상으로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폭력은 줄고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의 정서적인 측면의

20) 스쿨카ースト(または学校カースト)는 현대 일본학교공간에 있어서 학생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기의 척도를 표현하는 서열을 카스트제도와 같은 신분제도에 비유한 것,

폭력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유형들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자체도 모호하지만 피해 정도는 물리적 폭력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다음뉴스 2017. 10. 20).

따라서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유형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들고 그 양상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그 대책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언어폭력

2015년 일본의 문부성에 의하면 학교폭력 중 가장 많은 것은 언어폭력으로 조롱이나 놀림, 욕설이나 위협 등의 불평, 싫은 소리를 듣는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학교폭력 중 6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언어폭력발생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초의 학교폭력 인지는 대부분 언어폭력으로 인한 것이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폭력이 일본의 여학생에서 만연한 원인으로는 언어폭력 자체가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石川県教育センター 2015).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지만 가해자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언어폭력의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남들이 해서’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습관화된 언어폭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또 일본의 언어폭력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2014년 일본의 요코하마시(横浜市)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언어폭력에 관한 조사에서 ‘뒤에서 헐뜯을 들었다’ 라는 항목은 남학생은 30% 전반, 여학생은 40%로 여학생이 더 높았지만 ‘직접적으로 욕이나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50% 중반 대, 여학생은 40%로 남학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간접적으로 또 되도록 드러나지 않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점은 언어폭력에 대응과 관련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처가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전체 학교폭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언어폭력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경기도내 남녀학생들의 조사에서 언어폭력이 7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74.8%, 여학생 70.8%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에 있어서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증거로 남기기 어렵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교육부 2016).

특히 한국의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의 특징으로는 ‘외모’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크’, ‘성과’, ‘구토유발’ 등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의 언어폭력과 차별되는 점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외모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형외과 사이트 같은 곳에 ‘성형을 하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오는 등,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모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10대의 청소년들이 ‘성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명포털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에 ‘왕따 탈출법’을 알려주는 게시물 중 ‘살을 빼고 성형해라’, ‘유행하는 옷을 입어라’ 등의 조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외모 개선’이 왕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뉴스 2017. 12. 21).

실제로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 ‘외모평가 사이트’²¹⁾에서 본인의 외모 사진을 올려놓고 평가받는 것이 유행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외모에 대한 언어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최근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세태가 학교에서의 언어폭력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왕따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신방법이나 자기방어술을 가르쳐준다는 ‘왕따 과외’도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업계에서는 ‘왕따보험’을 출시(다음뉴스 2015. 3. 24)하였는데, 여러 보험업계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의 특징으로는 ‘기분 나빠(きもい)’ ‘짜증나(うざい)’ ‘똥보(デブ)’ ‘세균(バイ菌)’, ‘불결(不潔)’, ‘가난뱅이(貧乏)’, ‘추녀(ブス)’ 등의 언어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얼굴에 약간의 특징이 있어도

21) 얼굴에 등급을 매기는 해외사이트가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트의 주인공은 ‘핫 오어 낫’(Hot or Not·www.hotornot.com). 이 사이트는 회원이 자신의 얼굴을 사이트에 게재하면 사이트 방문객들이 외모를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반전체가 ‘더럽다(汚い)’ ‘가까이 오지마(ちかづくな)’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폭력은 언어폭력과 함께 피해자의 ‘체육복을 숨긴다’, ‘실내화를 숨기고 교과서를 버린다’, ‘책상에 낙서를 한다’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언어폭력과 함께 자기들끼리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한다’, ‘급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힘담을 한다’, ‘욕설을 쓴 종이를 돌리는 등의 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말과 행동들은 피해자를 극도로 배제하고 주로 확인되지 않는 소문, 중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2학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때는 남녀 학생 할 것 없이 전체가 한 학생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여학생들끼리의 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학년 때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언어폭력이 많았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외모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경우 언어폭력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서 시행한 추적조사에서는 ‘힘담’을 경험한 사람은 2004년의 중학교 1학년이 41.6%에서 2006년 중학교 3학년이 80.3%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0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동이 2009년의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에는 90.3%가 ‘힘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소학교 고학년부터 ‘야한 말’로 괴롭히는 등 성(性)과 관련된 농담으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에 대한 괴롭힘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성혐오’와 맞물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여학생 대 여학생만은 드물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시켜 피해 여학생을 언어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으로도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남학생 못지않게 집요하고 잔인하게 변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여학생들은 비교적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친밀하고 폐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언어폭력을 위시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菅野 1996). 주로 같은 반이나 같은 그룹 내에서 힘담을 듣고, 왕따를 시키고 소문을 흘림으로써 피해자가 된 아이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의 상처도 한층 깊어질 수 있다.

또 남학생이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달되면서 부풀려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여학생 학교폭력이 집단적으로 표출되

기 쉽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高石 1988). 따라서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여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년이 올라가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高石 1988).

사실 일본의 여학생 폭력은 최근에 부각되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전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언어폭력이 있었고, 그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교실에서 몰래 종이에 써서 돌려보는 등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남학생보다 눈에 띄지 않았을 뿐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주로 초등학교와 소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가장 많고 일본은 중학교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주로 ‘외모’에 대한 언어폭력이 많은데 현재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언어폭력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이 심해지면 ‘집단따돌림’ 그리고 ‘신체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5).

일본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모’에서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도 언어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친밀한 그룹을 만들어 그 속에서 폐쇄적인 언어폭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폭력은 한일 양국 모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보다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약해 습관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폭력’과도 연계되어 더 복합적인 학교폭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집단따돌림

2016년 일본의 문부성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은 17.8%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다음으로 많고 주로 ‘열외’나 ‘무시’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학교 고학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25.8%로 남학생의 17.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집단따돌림은 여학생들에게 많은 유형으로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집단따돌림이 보고되는 등 집단따돌림문제는 한국에서 왕따라는 용어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을 쪼먹고 있는 고질적인 폭력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해 ‘경미한 학교폭력(輕微ないじ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인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유형보다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여학생들에게 ‘혼자’만 남게 되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학생을 ‘자살’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도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 문제의 핵심 사안이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4)에 따르면, 언어폭력(34.6%)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형이 집단따돌림(17.1%)이며, 이는 2년 전 동일 실태조사 대비 한 단계 증가한 순위이다.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 건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은 여전히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2016년 경기도내 학생들은 각종 폭력 가운데 집단따돌림이 전체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44.2%, 남학생은 30.6%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집단따돌림은 성별과 학년을 막론하고 학교라는 공간에 늘 존재해 오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학교 안에는 교실이라는 공간, 그 공간 내 집단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루는 몇몇 친구 무리들의 존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징적으로 겪는 사회문화적 배경 중 하나로 바로 같은 교실을 공유하는 ‘학급문화’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학급문화’를 가지고 있어 한 번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그 낙인을 벗어나기가 힘들어 유치원에서의 집단따돌림이 소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학급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학년전체로 퍼지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다(문부성 2015).

이러한 비슷한 ‘학급문화’ 속에서 한일 양국의 여학생의 집단따돌림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은 ‘관계형의 따돌림’이 많은 반면, 한국은 ‘외톨이형 따돌림’이 많다.

일본의 여학생들에게 많은 ‘관계형 따돌림’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이다. ‘관계형 따돌림’은 학급 내 3~5명으로 구성된 또래 무리 내의 대인관계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갈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리 내 어울리는 구성원 중 누구나 무리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한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높은 상호성이 존재하는 관계 내 발생하는 따돌림으로서 무리 내 구성원은 누군가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여학생들에게 많은 유형은 ‘외톨이형 따돌림’으로 학급 내 어떠한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학급 내 다른 교우들에게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나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 온 한국의 ‘왕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따돌림은 발생원인 또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 여학생들 사이의 ‘관계형 따돌림’은 집단 내 갈등 및 남들에게 비취질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주요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무리 내에서 친구 간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 친구를 별하거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친구를 멀리하기 위함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따돌림의 문제를 무조건 특수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관계 내 발생한 갈등이 증폭되어 ‘외톨이형 따돌림’으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어, 또래와의 대인관계 속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학습이 다시금 강조되지만, 더불어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과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상황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무리 속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교사나 학부모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 여학생들 사이의 ‘외톨이형 따돌림’의 주요 대상은 교실 내에서 어느 누구와도 교감이 없는 외톨이형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들은 ‘따돌림위험군’(다음뉴스 2015. 9. 20)의 학생들로 교실 내에 10명 중 2명의 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사회적지지도 친밀도도 취약하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돌림위험군 신뢰성 검증 결과’ 이 중 86%가 실제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돌림위험군’으로 분석됐지만, 기존 인성검사와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학생도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외톨이형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돌림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미리 알아서 맞춤형지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형 따돌림’이건 ‘외톨이형 따돌림’이건 간에 이러한 형태의 집단따돌림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또래 부침의 과정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황만을 보고 모두 ‘집단따돌림’이라 명명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정밀하게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일본의 여학생들의 최근의 집단따돌림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으로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여학생(ぶりっこ)’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한국의 여학생들의 ‘왕따’의 원인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예쁜 척’, ‘인기 많은 척’, ‘센 척’ 하는 모습 등이 왕따의 표적이 된다는 점이다.

또 일본에서는 ‘교실카스트제도(教室カスト)’를 들 수 있는데, 교실 내에 카스트제도에 따라서 상위계급에서 하위계급에 대한 언어폭력과 ‘열외’와 ‘무시’등을 당연시 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때 한국에서도 ‘노스페이스계급’²²⁾점퍼 가격에 따라 학급 내에서도 학생들의 계급이 나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의 ‘교실카스트제도’와 다른 점은 한국은 오로지 경제적 면만으로 계급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외모, 경제적인 면, 공부, 인지도, 운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점수화해서 계급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교실내의 카스트제도를 만들고 있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그 카스트제도가 소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도 그대로 카스트제도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따돌림을 발생시키고 방치되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문부성 2014).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후쿠시마원전이지매(福島原発いじめ)’²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단따돌림문제를 학교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집단따돌림은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등 오히려 이제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둔감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미디어에서 ‘왕따’를 취급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왕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아직도 뭔가 ‘결핍’되어 있거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한국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정착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왕따’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왕따’뿐만 아니라 ‘돌림왕따’, ‘지목왕따’, ‘카톡왕따’, ‘전따’, ‘은따’ 등의 많은 용어와 함께 새로운 ‘왕따’유형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티아라 놀이’²⁴⁾ 등의 놀이의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왕따’가 ‘군대왕따’, ‘직장왕따’까지 이어지면서 집단에 의한 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비슷한 ‘학급문화’의 환경이지만 다른

22) 2010-2011년에 패딩들 중 같은 모델의 패딩이라도 색깔별로 계급이 나뉘기도 했다

23) 후쿠시마원전(福島原発)에서 일어난 사고에 의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지매로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및 폭행, 금품요구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부등교 등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짐.

24)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걸그룹 티아라에서 따돌림 논란이 있었던 것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학생 한명을 괴롭히면서 티아라 놀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외톨이형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원인으로 는 사회적 지지와 친밀도가 낮은 것을 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관계형 따돌림’이 많고 주요 원인은 작은 그룹 내에서의 상황에 따른 역동적인 따돌림으로 누구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법에 대해서 일본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보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3 사이버폭력

일본의 문부성(2016)에 의하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늘고 있으며 과거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폭력이 많았지만, 스마트폰이 증가하면서 SNS에 의한 문제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내각부(2014)에 의하면 소학생이 36.6%, 중학생 51.9%, 고등학생이 97.2%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입 시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빠르며 소지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야후재팬뉴스 2015. 4. 28).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교육부 2016), 카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SNS 이용과 관련하여 카톡 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SNS는 사이버폭력환경을 더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2015. 8. 18)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SNS 메신저 사용률이 76.1%에 이르는 있고 대부분 급우와 연락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여학생들의 SNS 사용 양상을 보면 급우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하여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팔로워 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中井 2014). 이러한 SNS 활동은 최근의 일본의 청소년들의 인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라인(LINE)의 이용이 눈에 띄는데 총무성(2014)에 의하면 10대의 70.5%, 20대의 80.3%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라인(LINE)과 다른 SNS와의 차이점은 메일처럼 여러 사람들과의 주고받음과 동영상 등의 데이터의 주고받음이 용이할 뿐 아니라, 특유의 ‘스탬프(stamp)’라고 하는 일러스트를 발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들 수 있다. ‘스탬프’는 휴대폰 메시지 등에서 글 대신에 간단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이나 캐릭터로, 우리나라 식으로 하자면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에 해당한다.

하지만 라인(LINE)이 편리한 만큼 여러 가지 트러블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스탬프’와 관련하여 본인이 주로 쓰는 것을 다른 친구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본인의 말의 의도와는 다른 반응의 스탬프가 올 경우 ‘무신경 하다’,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다’ 등의 평가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 미묘한 상황과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케우치(竹内 2014)가 들고 있는 것처럼 식사 중과 공부 중도 관계없이 라인을 사용하는 예와 메시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는 ‘기도쿠스루(きどくスルー)’ 문제와 라인(LINE)에서의 개인정보를 차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넷 게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 이것에 더해 ID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메일보다 용이하게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지금까지 전혀 모르던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가 하면, 특정의 인물을 그룹대화에서 열외 하는 ‘라인따돌림(LINE外し)’, ‘그룹따돌림(グループ外し)’ 등 그동안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피해율은 소학교 고학년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들로 나타났다는데, 남학생들은 온라인게임 등을 위해 게임머니강탈, 게임레벨 올리기, 와이파이어서들이나, 방폭, 카톡감옥 등의 사이버폭력이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SNS에 의한 사이버스토킹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열린의사회 2015).

구체적인 예로는 SNS인 카톡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험담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이버비방경험이 254건(4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지불링(사진 등을 통해 괴롭히는 것)’ 경험이 122건(19.6%), ‘사이버감금(카톡 채팅방에 가두고 욕설 등을 퍼붓는 것)’ 경험은 69건(11.1%)로 뒤를 이었다(열린의사회 2015).

또 ‘저격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격글’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대놓고 올리는 것을 뜻한다. 피해학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수법으로 처벌을 교묘히 피해간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격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피해 학생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다. ‘ㄱㅇㅈ’을 저격한다는 식으로 초성만을 주기고 하고, ‘저격글’을 공유한 사람에겐 주인공이 누구인지 살짝 알려주겠다며 동참을 유도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게시물에 ‘태그’해서 ‘저격글’과 ‘악플’을 읽게 하는 수법도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온라인 활동에서도 학교폭력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카카오토티는 폐쇄형 SNS의 형태로 익명성보다는 실명에 기반을 두며, 이미 존재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명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SNS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미디어를 넘나들며 이뤄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에서의 최근의 학교폭력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전통적 형태의 학교폭력과 별개의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폭력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오프라인 상에서 먼저 발생한 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상당수의 피해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모두 피해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Erdur-Baker 2010)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국 미디어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따돌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그 현상을 보기보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이라는 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유년 시절부터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오고 있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두 공간을 넘나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한일 양국에서 여학생들의 SNS 이용에 따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휴대전화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에 대한 기사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을 통한 방법기능에 대한 기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중앙일보 2014. 2. 12) 초등학생들의 소통의 도구로서 카톡 등의 ‘앱’이용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전자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인터넷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일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핸드폰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도 일본의 학부모가 더 관심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 일본보다 저연령에서의 사이버폭력이 더 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등에 의한 인터넷이용에 대해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내용은 거의 볼 수 없다. 휴대전화는 필터링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것’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사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라고 차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소통도구로서의 역할로부터 적극적으로 친구관계에 이용하자라는 기사는 거의 볼 수가 없다.

특히 라인(LINE) 등의 SNS의 이용에 대해서 위협시하는 기사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으로 가장 주목할 것은 ‘어른은 제대로 쓸 수 없는 휴대폰을 아이들은 더 잘 쓸 수 있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교사나 학부모가 SNS의 학교폭력을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학교나 학부모는 설령 학생들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토티’ ‘친구’를 맺어 주기적으로 들어가 살펴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친구 맺기’ 기능을 통해서 ‘친구’가 됐다고 모든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 본인의 ‘공개’ 정도를 조정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못 보게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일 양국에서의 SNS가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에 어떤 영향은 기존의 학교폭력과 비교하여 잠재적 청중의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전통적 형태는 그 현장에 있는 소규모 집단에게만 가해 현상이 노출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폭력이 노출된다. 온라인의 특성상 그 온라인 관계망에 있는 누구든지, 예를 들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 혹은 친구의 친구들에게도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 즉, 목격자 혹은 방관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여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급증’이라는 현상만으로는 여학생폭력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학생폭력의 문제를 그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청소년과 휴대폰이라는 인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라인(LINE)에서 상대방을 비방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유해한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도 사이버폭력의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진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SNS 환경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카톡이나 카카오토티 등의 이용이 많고 남학생들이 인터넷게임과 관련한 폭력이 많은 것에 비해 여학생은 사이버스토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은 라인(LINE)에 의한 사이버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라인의 기능이 편한 것만큼 그 기능을 이용한 폭력이 늘어난 양상으로 일본의 여학생들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라인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폭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휴대전화를 못가지게 한다든지 필터링 등의 대책을 취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학교 내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숨길 뿐이다.

결국 학교폭력은 인터넷기술이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학생과 학생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감성을 키우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현상과 최근의 기사를 살펴보고,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여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양상을 살펴보고 결과에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현상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학생 폭력은 기존에도 있어왔고 남학생들과 공격양상이 달라 주목을 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여학생폭력은 연이은 심각한 신체폭력으로 표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정서적인 폭력이 숨어 있고, 심각한 신체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문’, ‘뒷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라인(LINE) 등의 SNS에 의한 폭력에 의해 여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이는 ‘같은 그룹’ 내에서도 ‘비밀 그룹’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열화’나 ‘무시’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학교폭력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간주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이지만 여학생들의 친구관계를 성향과 맞물려 복합적인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여학생폭력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은 휴대폰 메시지, 왕따카페, 안티카페, 카톡왕따. 등으로 진화하고 있고, 일본은 휴대폰 메시지에서도 학교비공식사이트와 라인이지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휴대폰의 발달은 학부모나 학교에 의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결국 한일 양국의 여학생 폭력은 ‘급증’에서 ‘심각화’되고 ‘음습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유형 중 최근 늘고 있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해 살펴보고 결과에 다음과 같다.

언어폭력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에게 발생비율이 많은 이유는 다른 폭력에 비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은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가장 많고, 배경은 대부분은 사소한 소문

과 험담 등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모비하에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점은 한국사회에 외모지상주의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소학교 고학년 여학생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학교 때 발생률이 가장 많았고, 주로 여학생들끼리 작은 그룹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여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학생들을 시키는 등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혀 가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한국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에 대해서 일본은 ‘교실 내 계급’에 따라 따돌림을 당연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어느 한분야만을 주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 외모, 운동, 공부, 사회성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울러 만든 계급이어서 한국에서의 ‘노스페이스계급’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 한국은 ‘외톨이형 따돌림’이 많은 반면 일본은 ‘관계형 따돌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관계형 따돌림’은 친밀한 그룹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역동성이 강한 따돌림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언제나 ‘관계형’에서 ‘외톨이형’으로의 변화는 가능하고 그것을 쉽게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SNS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한일 양국 여학생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학생들과 확연하게 다른 점으로 여학생들은 SNS에 의한 사이버폭력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카톡과 카카오톡에 의한 사이버스토킹이 문제이고, 일본에서는 라인(LINE)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있어 SNS의 소통방식에 너무 민감한 환경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같은 학교 학급에서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것이 사이버 상으로 옮겨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점은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나 카톡, 라인 등의 SNS환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 문자에만 의지한 채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감성을 키우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경기도교육청(2016)「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서」<http://www.goe.go.kr/>

교육부(2016)「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http://if-blog.tistory.com/>

_____ (2015)「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http://if-blog.tistory.com/>

- _____ (2014)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http://if-blog.tistory.com/>
- 부산교육청(2015)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http://www.pen.go.kr/>
- 부산경찰청(2017)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http://www.bspolice.go.kr/>
- 열린의사회(2014). 상다미샘 <http://www.opendrs.or.kr/>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 <http://blog.naver.com/>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한국의 청소년 게임중독보고서」 <http://www.nypi.re.kr/>
- 石川県教育センター(2015) 「いじめに繋がる言葉の地図」, pp.11-27
- 小針誠(2010) 「学校裏サイトにおける『ネットいじめ』の構造と対策」 深谷昌志、深谷和子、高旗正人編『ユビキタス社会の中での子どもの成長』ケータイ時代を生きる子どもたち
- 警察庁(2013) 「平成25年上半期の出会い系サイト等に起因する事犯の現状に対策について」 www.npa.go.jp/
- _____ (2014) 「いじめに起因する事件の検挙補導」 www8.cao.go.jp/
- 高石浩一(1988) 「少年期の対人関係の問題について: 特に『いじめ』との関連から」 『京都大学教育学部紀要』 34, pp.221-230
- 菅野純(1996) 「いじめ: 子どもの心に近づく」 『月刊生徒指導』 26(19), pp.24-29
- 少年教育振興機構(2016) 「日本の小学生スマホ保有率」 www.garbagenews.net
- 総務省(2009) 「平成20年通信利用動向調査報告書 世帯編」
- _____ (2011) 「情報通信白書」 「第2節共生型ネット社会の実現に向かって」, pp.84-88
- 竹内和雄(2014) 「心とからだの健康: 子どもの生きる力を育む」 ci.nii.ac.jp
- _____ スマホ時代のいじめの実態と対策: 子どものSOSが聴こえる養護教諭であるために(特集 いじめの実態把握と防止対策)
- 内閣府(2007) 「第5回情報化社会と青少年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1) 「青少年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
- _____ (2016) 「若者たち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環境実態調査」 <http://www8.cao.go.jp/>
- 中井良・田代千晶・永岡慶三(2012) 「教科情報モラルジレンマ教材を用いたオンラインディスカッションと対話型授業の実践」 『日本教育工学会研究報告集』 1, pp.23-30
- 文部科学省(2008) 「ネット上のいじめ」に関する対応マニュアル・事例集(学校・教員向け) <http://www.mext.go.jp/>
- _____ (2014) 「いじめ問題に対する事例集」 <http://www.mext.go.jp/>
- _____ (2014) 「平成25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 <http://www.mext.go.jp/>
- _____ (2015) 「平成26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 <http://www.mext.go.jp/>
- _____ (2016) 「平成27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問題に関する調査」 <http://www.mext.go.jp/>
- Erdu-Baker(2010) 「온라인 괴롭힘과 일반 괴롭힘의 빈도차이를 비교한 연구」, pp.10-29
- GSMA・MSRI(2009) 「세계청소년 이동통신 이용형태 조사」 <http://news.inews24.com/>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보고서」 <http://blog.naver.com/>
- MMD研究所(2007) 「스마트폰의 이용실태조사」 mmdlabo.jp/investigation/

논문투고일 : 2018년 03월 1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要旨〉

한일 양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사의 내용분석에서 -

이진아·안병곤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현상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학생 폭력은 기존에도 있어왔고 남학생들과 공격양상이 달라 주목을 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여학생폭력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은 휴대폰 메시지, 왕따카페, 안티카페, 카톡왕따. 등으로 진화하고 있고, 일본은 휴대폰 메시지에서부터 학교비공식사이트와 라인 이지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휴대폰의 발달은 학부모나 학교에 의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결국 한일 양국의 여학생 폭력은 ‘급증’에서 ‘심각화’, ‘음습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Types of School girl Violence in Korean and Japanese Schools

Lee, Jin-A ·An, Byoung-Gon

School violence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chool girls seems to be on the rise, but violence against girls has been in place, and the attitudes of boys and girls are less noticeable. If you look at the articles on violence against girls in both Korea and Japan, Korea has a cell phone message, a bullying cafe, an anti cafe, Etc., Japan is evolving from cell phone message to school unofficial site. Line Ijime and the like. The development of such mobile phones means that the monitoring by parents and schools has become virtually impossible. As a result, violence against girls in both Korea and Japan has become ‘serious’ and ‘humidifying’ from ‘surge’.